

李東垣의 脾胃學說에 관한 小考

殷哲玟¹⁾

들어는 말

한의학의 기본이론 가운데 胃氣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일찍이 『內經』의 여러 부분에서 胃氣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로 많은 의가들이 그 의의를 깊이 연구하여 실제 임상에 사용해 왔다. 특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 金代의 醫家인 李東垣은 그의 脾胃學說을 통해 『內經』과 『傷寒論』 등의 醫經에 담겨진 뜻을 당대에 펼치고자 노력하였고, 이후로 많은 의가들이 그의 학설을 이른바 內傷을 치료하는 典範으로 삼았다. 필자는 이 글에서 중국 清代의 醫家인 吳鞠通이 저술한 『溫病條辨』 중의 한 단락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東垣 脾胃學說의 한 단면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필자가 『溫病條辨』 중에서 취한 내용은 吳鞠通이 噤口痢의 치법에 대해 논하면서 李東垣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吳鞠通은 『溫病條辨·卷三·下焦篇·濕溫』에서 噤口痢의 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噤口痢는 嘔惡不飢, 積少痛緩, 形衰脈弦, 舌白不渴 등의 증상을 보이며, 加味參苓白朮散으로 主治한다. 이 噤口痢는 邪少虛多한 것이니 中焦를 치료하는 법을 쓴다. 積少痛緩하니 邪氣가 적은 것을 알 수 있고, 舌苔가 白하니 熱이 없으며, 形衰不渴, 不飢不食하니 胃關이 閉하려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脈이 弦하다고 한 것은 『金匱要略』에서 ‘(脈이) 弦한 즉 減해진 것이니, 대개 陰精과 陽氣가 모두 不足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靈樞』에서는 ‘脈이 小한 모든 경우

1) 南京中醫藥大學 醫史文獻教室 博士研究生

는 陰陽形氣가 다 不足한 것이니 鍼을 쓰면 안 되며, 甘한 약으로 조리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仲景은 실로 이에 근거하여 建中湯을 지어 냈으니, 모든 虛하고 不足한 경우를 치료하는 것으로서 일체 虛勞의 근본이 되는 처방이다. 李東垣은 또한 이로부터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清暑益氣湯 등의 처방을 지어 냈으며, 모두 甘溫한 약으로 大熱을 없애는 治法이긴 하나 결국 建中湯의 純함만 같지 못하니, 대개 建中함이 德이 勝한 것이라면 補中함은 才가 勝한 것이다. 甘한 약으로 조리한다 함은 十二經이 모두 胃로부터 氣를 받으니 胃가 회복되면 十二經의 모든 虛하고 不足한 바가 다 회복된다는 뜻이다. 葉氏가 虛함이 많고 脈이 弦한 噤口痢에 古方 중의 參苓白朮散을 본받아 이에 加味한 것도 또한 모든 虛하고 不足함에 甘한 약으로 조리한다는 뜻과 같은 것이니, 역시 仲景, 東垣의 두 법에서 나온 것으로서 급히 胃氣를 회복시키는 것을 요점으로 삼는 것이다.”²⁾

吳鞠通의 설명을 보면 東垣이 仲景의 法을 따라 補中益氣湯 등의 처방을 만들어 내었지만 그 처방이 建中湯의 純함만 같지 못하며, 建中함이 德이 勝한 것이라면 補中함은 才가 勝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仲景의 法은 무엇이고 이로부터 취한 東垣의 法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먼저 吳鞠通이 설명한 부분을 좇아 『靈樞』, 『金匱要略』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靈樞』의 내용을 보면 ‘邪氣藏府病形’에서 “黃帝가 病중의 六變에 대해서는 어떻게 刺하는가를 물었다. 岐伯이 답하기를, ‘(脈이) 急한 모든 경우는 寒이 많고 緩한 것은 熱이 많으며, 大한 것은 多氣少血하고 小한 것은 血氣가 모두 少하며, 滑한 것은 陽氣가 盛하면서 약간 熱이 있는 것이고, 澁한 것은 多血少氣하면서 약간 寒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急한 것을 刺할 때에는 깊이 刺하면서 오래 머물게 합니다. ……(脈이) 小한 모든 경우에는 陰陽形氣가 다 不足한 것이니 鍼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甘한 약으로 조리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³⁾라 하고 있다. 그리고, 『金匱要略』에서는 ‘血痺虛勞病脈証并治’에서

2) “噤口痢, 嘔惡不飢, 積少痛緩, 形衰脈弦, 舌白不渴, 加味參苓白朮散主之. 此噤口痢邪少虛多, 治中焦之法也. 積少痛緩, 則知邪少. 舌白者無熱, 形衰不渴, 不飢不食, 則知胃關欲閉矣. 脈弦者, 『金匱』謂, 弦則爲減, 皆謂陰精陽氣俱不足也. 『靈樞』謂, 諸小脈者, 陰陽形氣俱不足, 勿取以鍼, 調以甘藥也. 仲景實本于此以作建中湯, 治諸虛不足, 爲一切虛勞之祖方. 李東垣又從此化出補中益氣, 升陽益氣, 清暑益氣湯等, 皆甘溫除大熱法, 究不若建中之純, 蓋建中以德勝, 而補中以才勝者也. 調以甘藥者, 十二經皆秉氣于胃, 胃復則十二經之諸虛不足, 皆可復也. 葉氏治虛多脈弦之噤口痢, 仿古之參苓白朮散而加之者, 亦同諸虛不足調以甘藥之義, 又從仲景東垣兩法化出, 而以急復胃氣爲要者也.” 『溫病條辨卷三·下焦篇濕溫』

“脈이 弦하고 大함은, 弦한 것은 減해진 것이요 大한 것은 扞脈이며, 減해진 것은 寒한 것이고 扞한 것은 虛한 것이니, 虛와 寒이 서로 搏한 것으로서 이를 革脈이라 한다. 婦人의 경우에는 半産, 漏下가 있고, 남자의 경우에는 亡血, 失精이 있다.……虛勞裏急, 悸, 衄, 腹中痛, 夢失精, 四肢酸疼, 手足煩熱, 咽乾口燥한 경우에는 小建中湯으로 主治한다.”⁴⁾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그 病機의 요지는 陰精陽氣 내지는 陰陽形氣가 모두 不足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陰陽이 모두 不足하게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뜻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形과 氣의 관계를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통해 陽氣를 받아들여야 하고 또한 물과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陽氣에 의한 지속적인 연소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체의 陰陽構造는 이 활동적인 陽氣를 섭취하여 적절히 제어함으로써 인체 내에서 조용히 협조적으로 활동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어떤 원인으로 인해 인체 내 陰陽의 평형이 깨지면 陽氣는 그 공격적인 본성을 회복하여 인체에 위해를 가하게 되고 만다. 『內經』에서 말하는 ‘少火生氣’, ‘壯火散氣’의 뜻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少火生氣’라고 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이끌어 내는 구조는 무엇인가? 인체의 形은 그 틀 안에서 陽이 陰을 이끌면서 그 교류과정에서 形을 유지하는 근원적인 기운을 만들어 내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太極生兩儀’라고 하였는데, 陰과 陽이 교류하는 과정은 陰과 陽이 서로 맞물려 太極 모양의 운동을 하는 것이고, 形은 이 과정을 이끌어 내는 바탕이자 그로부터 形 자체를 유지하는 생명력을 전달받는 모체라고 할 수 있다. 즉 形은 太極 모양의 나선형구조를 지니고 있고, 이 구조는 생명의 일원적 근원으로서의 氣의 운동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陰陽의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東垣은 특히 胃氣의 개념을 강조하여 脾胃의 不足이 陽氣不足, 陰氣有餘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의 陽氣, 陰氣라 함은 形이라는 틀 내에서

3) “黃帝曰, 病之六變者, 刺之奈何? 岐伯答曰, 諸急者多寒, 緩者多熱, 大者多氣少血, 小者血氣皆少, 滑者陽氣盛, 微有熱, 澁者多血少氣, 微有寒. 是故刺急者, 深內而久留之. ……諸小者, 陰陽形氣俱不足, 勿取以鍼, 而調以甘藥也.” 『靈樞·邪氣藏府病形』

4) “脈弦而大, 弦則爲減, 大則爲扞, 減則爲寒, 扞則爲虛, 虛寒相搏, 此名爲革. 婦人則半産漏下, 男子則亡血失精. ……虛勞裏急, 悸, 衄, 腹中痛, 夢失精, 四肢酸疼, 手足煩熱, 咽乾口燥, 小建中湯主之.” 『金匱要略·血痺虛勞病脈証并治』

陰陽이 교류하면서 생성되는 氣의 변화양태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陽氣란 곧 元氣로서 陰陽의 교류과정에서 상승하면서 形을 유지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陰氣란 形을 유지하는 힘이 만들어진 후 陰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陽이 陰에 대해 殺氣로 작용하면서 생성되는 기운으로서, 인체의 形에 유해하다고 생각된다. 吳鞠通은 『溫病條辨·雜說·風論』에서 “대저 冬至로부터 45일 이후 夜半에 少陽이 起하면서 立春이 되는데, 立春 전 15일에 大寒의 節氣와 만나면서 厥陰風木이 行令하여 1년 중의 陽氣를 疏泄시켜 德을 펴고 仁을 행하여 만물을 生育한다.”⁵⁾라고 하였다. 吳鞠通이 말한 바의 疏泄되는 陽氣는 天氣(陽氣)가 일조량의 변화에 의해 땅속의 陽氣가 촉발되어 상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외부의 陽이 陰에 감싸여 있는 내부의 陽과 반응하고 이 내부의 陽이 결국 陰을 촉발시켜 함께 상승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陽生陰長, 陽殺陰藏”이라 하였듯이 봄, 여름 동안 외부에서 가해지는 陽은 陰을 長하게 하지만, 이 상승한 陰과 陽이 ‘化’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이후 가을과 겨울에는 외부로부터의 陽과 내부의 陽의 교류는 미약해지고 외부로부터의 陽이 陰에 대해 殺氣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東垣이 말한 바 陽氣不足, 陰氣有餘라 함은 ‘化’의 과정을 통해 形을 유지하는 힘을 만들어 내는 바탕이 되는 상승하는 元氣는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陽이 陰에 대해 공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 우세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東垣은 ‘陰虛生內熱’의 病機를 말하였는데, 이는 脾胃不足의 관점에서 볼 때 後天적으로 穀氣가 부족함으로 인해 陰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해 이 부족한 陰이 陽을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체가 形이라는 틀 내에서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寒熱조건의 평형상태가 필요하다. 元氣가 생성되는 바탕은 陰이고 이 陰이 主가 되어 客인 陽을 받아들여 形을 유지하는 힘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만약 客인 陽이 主人 陰보다 우세해진다면 客이 主에 협조적이지 못하고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만다. 인체의 形은 氣의 운동양태를 결정하며, 氣의 운동양태는 陰과 陽의 교류에 있어 陰이 主가 될 수 있도록(陽이 陰을 이끈다는 의미와는 다름), 즉 陰이 陽을 받아들 이면서 생길 수 있는 과다한 熱을 지속적으로 냉각시키는 형태로 나타나야만 한다. 形이라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太極 모양의 운동은 결국 陰과 陽이 맞물려 陰이 陽

5) “蓋冬至四十五日, 以後夜半少陽起而立春, 于立春前十五日交大寒節, 而厥陰風木行令, 所以疏泄一年之陽氣, 以布德行仁, 生養萬物者也。” 『溫病條辨·雜說·風論』

을 원만하게 받아들임으로써 形을 유지하는 근원적인 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절한 압축상태를 유지하여 寒熱조건을 陽이 제어되는 방향으로 만드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어떤 원인으로 寒熱조건이 변화되어 陽이 妄動함으로써 熱이 발생하면 陰을 바탕으로 하여 생기는 元氣를 손상시키게 되고, 이로부터 결국은 形을 유지하는 힘도 생성될 수 없다. 陰이 不足해지면서 그만큼 陽을 품는 힘도 잃어 가니 결국 陰陽이 모두 不足해지는 결과가 된다.

그럼 이제 仲景의 小建中湯에 담겨진 建中의 뜻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小建中湯의 약물구성과 효능에 대해 중국 金代의 成無己는 『傷寒明理論·卷四』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內經』에 이르기를, 肝은 左에서 生하고 肺는 右에서 生하며, 心은 上에 위치하고 腎은 下에 위치하여, 左右上下에 四臟이 居하며, 脾는 土로서 中양에 應하고 四臟의 가운데 위치하여 中州가 되며, 中焦를 다스려 榮衛를 생육하고 津液을 통행시킨다고 하였다. 만약 조화롭지 못함이 있어 榮衛가 길러지지 못함으로써 津液이 行하지 못하면 반드시 이 方으로 中臟을 溫建해야 하니, 이로 인해 建中이라 이름하게 되었다. 膠飴는 味가 甘溫하고 甘草는 味가 甘平寒데, 脾가 緩하려 하면 급히 甘味를 복용하여 緩하게 한다. 建脾를 하려 하면 반드시 甘味가 主가 되어야 하는데, 따라서 膠飴가 君이 되고 甘草가 臣이 되었다. 桂枝는 辛熱한데, 辛味는 散하게 하고 潤하게 하는 것이며, 榮衛가 不足할 때에는 潤하게 하고 散하게 해야 한다. 芍藥은 味가 酸하고 味寒한데, 酸味는 收斂시키고 泄하게 하며, 津液이 이르지 못할 때에는 收斂시켜 行하게 해야 하니, 이런 까닭으로 桂枝, 芍藥이 佐가 되었다. 生薑은 味가 辛溫하고 大棗는 味가 甘溫한데, 胃는 衛氣의 근원이 되고 脾는 榮氣의 근본이 되므로 『黃帝內經』에서 榮氣는 中焦에서 出하고 衛氣는 上焦에서 出한다고 한 바가 그것이다. 衛氣는 陽이므로 그 不足한 바를 더하려 하면 반드시 辛味로써 해야 하며, 榮氣는 陰이므로 不足한 바를 補하려 하면 반드시 甘味로써 해야 하는데, 辛味와 甘味가 서로 합해지면 脾胃가 강건해져 榮衛가 통하게 되니, 이런 까닭으로 生薑과 大棗가 使가 되었다. 간혹 桂枝湯은 表를 解하므로 芍藥의 양이 적고, 建中湯은 裏를 溫하므로 芍藥의 양이 많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양자가 遠近의 이치에 따라 지어진 바임을 모르는 것이다. 皮膚에 있는 邪氣는 近位에 있으므로 적은 양으로 하여 복용하니, 桂枝湯의 芍藥은 桂枝를 보좌하여 함께 散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서 建中湯

과 같은 體가 아닌 것이다. 心腹의 邪氣는 遠位에 있으므로 많은 양으로 하여 복용하니, 建中湯의 芍藥은 膠飴를 보좌하여 建脾시키는 것으로서 桂枝湯과 같은 쓰임이 아닌 것이다. 『內經』에서 病이 近位에 있어 奇方이나 偶方을 쓸 때에는 劑量을 적게 하고, 病이 遠位에 있어 奇方이나 偶方을 쓸 때에는 劑量을 많게 하라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말한 것이다.”⁶⁾

또한 중국 清代의 醫家인 周揚俊은 形氣의 不足과 이에 대한 仲景의 처방에 대해 그의 저작인 『金匱玉函經二注』의 補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形氣가 不足하면서 病氣도 不足하면 이는 陰陽이 다 不足한 것이다. 刺法을 사용해서는 안되니, 刺하면 虛함이 더하게 된다. 대개 氣가 不足하다 함은 中氣가 굳건하지 못하여 頻欲更衣, 心下悸의 증상이 있거나, 또는 陽明의 內熱로 血이 밖으로 넘쳐나거나, 腹中痛이 있거나 夢중에 遺精하는 것 등이 모두 氣가 不足함으로 인한 것이다. 形이 不足하다 함은 즉 四肢가 강건하지 못하고 酸疼하거나 심하면 手足의 煩熱과 津液이 줄면서 건조해지는 것 등이 모두 形이 不足함으로 인한 것이다. 經에 이르기를 刺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虛함이 더해지기 때문이며 마땅히 甘한 약으로 이를 補해야 한다.⁷⁾ 이 부분에서 그 뜻에 대해 오직 仲景이 이를 따랐는데, 중양을 길러 臟腑百脈에 灌注시킴에 小建中湯이 주가 되게 한 것은 바로 稼穡이 甘味를 낸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病証을 살펴보면 혹은 腎虛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많아서, 水가 虧해 있으면 마땅히 壯水之主하여 陽光을 누르고 火가 衰하여 있으면 益火之原하여 陰翳를 없앤다고 한 治法을 쓸 만도 한데, 仲景이 홀로 이를 따르지 않고 오직 中氣를 굳게 세우는 것을 첫째로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聖人께서 이르시기를 精이란 穀氣라고 하였다. 즉 腎은 精을 藏하는 곳이 되어 伎巧가 出하니, 실로 五穀의 자양함과 五味의

6) “『內經』曰: 肝生于左, 肺藏于右, 心位在上, 腎處于下, 左右上下, 四臟居焉. 脾者土也, 應中央, 處四臟之中, 爲中州, 治中焦, 生育榮衛, 通行津液. 一有不調, 則榮衛失所育, 津液失所行, 必以此湯溫建中臟, 是以建中名焉. 膠飴味甘溫, 甘草味甘平, 脾欲緩, 急食甘以緩之. 建脾者, 必以甘爲主, 故以膠飴爲君, 甘草爲臣. 桂辛熱, 辛散也, 潤也, 榮衛不足, 潤而散之. 芍藥味酸微寒, 酸收也, 泄也, 津液不滯, 收而行至, 是以桂枝芍藥爲佐. 生薑味辛溫, 大棗味甘溫, 胃者衛之源, 脾者榮之本, 『黃帝內經』曰: 榮出中焦, 衛出上焦是矣. 衛爲陽, 不足者益之必以辛. 榮爲陰, 不足者補之必以甘, 辛甘相合, 脾胃健而榮衛通, 是以薑棗爲使. 或謂桂枝湯解表, 而芍藥數少, 建中湯溫裏, 而芍藥數多, 殊不知二者遠近之制. 皮膚之邪爲近, 則制小其服也, 桂枝湯芍藥佐桂枝同用散, 非與建中同體耳. 心腹之邪爲遠, 則制大其服也, 建中湯芍藥佐膠飴以建脾, 非與桂枝同用耳. 『內經』曰: 近而奇偶, 制小其服, 遠而奇偶, 制大其服, 此之謂也.” 『傷寒明理論卷四』

7) 東垣 역시 『內外傷辨惑論·卷下·重明木鬱則達之之理』에서 『靈樞·根結』의 내용을 인용하여 形氣의 有餘不足에 대해 논하고 있다.

조화로움이 있지 않으면 이 또한 어떻게 생할 수 있겠는가 한 뜻을 가히 알 수 있다. 그리하여 經에서 또 이르기를 精이 不足하면 味로써 補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胃가 들이지 못하고 脾가 運行시키지 못하면 이 또한 어찌하겠는가? 이런 까닭으로 聖人께서는 建中함으로써 主治하신 바, 中州의 土가 이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움으로써 음식이 胃에 들어 精氣가 흘러 넘치는 것을 위로 脾에 보내면 脾氣가 精을 散하게 하여 위로 肺에 돌리는 것이니, 經에서 이른 바와 같이 즉 五臟百脈이 자연히 흡족해지는 것이며, 어찌 단지 이미 病이 들어서만이겠는가?”⁸⁾

위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 볼 때 吳鞠通이 仲景의 法에 대해 德이 勝하고 또한 純한 것이라고 한 뜻은 陰陽形氣가 다 不足한 虛證에 대해 그 中州를 溫建하는 방법을 위주로 하여 그 形을 다듬는 바를 뜻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膠飴와 甘草, 芍藥으로 土를 補하고 芍藥의 收斂하는 힘으로 津液을 통하게 하며, 약물들의 寒熱의 성질이 맞물려 中州의 形이 형성되는 조건을 만듦으로써 建脾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桂枝, 甘草, 大棗로 榮衛를 통하게 하였는데, 溫建이라 함은 陰을 甘味로써 補하여 陰이 陽을 품게 하고 또한 陰을 바탕으로 하여 생성되는 元氣가 상승하는 것을 돕기 위해 陰에 내포된 陽을 돕는 溫한 藥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元氣가 상승하면 形이 건설해지고 그 形 내에서 陰陽이 조절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東垣은 小建中湯에 대해 『內外傷辨惑論·卷中·四時用藥加減法』에서 “만약 腹痛, 惡寒이 있고 脈이 弦하면 이는 木이 土를 克하는 것이며, 小建中湯으로 이를 다스린다. 대개 芍藥은 味가 酸하므로 土 중에서 木을 瀉하니 君藥으로 한다(如腹中痛, 惡寒而脈弦者, 是木來克土也, 小建中湯主之. 盖芍藥味酸, 于土中瀉木爲君.)”라고 하였다. 또한 東垣이 補中益氣湯 등에서 취한 治法은 補法을 위주로 하여 中土를 침범한

8) “形氣不足, 病氣不足, 此陰陽俱不足也. 不可刺之, 刺之爲重虛. 皆氣不足者, 如中氣不健, 頻欲更衣, 心下悸, 或陽明內熱而血外溢, 或腹中痛, 或夢接內而遺, 種種悉氣之不足爲之也. 形不足者, 卽如四肢不但不強健而酸疼, 甚至手足煩熱, 津液少而乾燥, 種種皆形之不足爲之也. 經謂不可刺, 以重虛者, 宜補之以甘藥. 此其意惟仲景遵之, 培中央以灌輸府臟百脈, 主以小建中, 正稼穡作甘之意也. 然觀此証, 則腎虛爲多, 水虧當壯水之主以鎮陽光, 火衰則益火之原以消陰翳, 獨仲景不屑于此, 而惟以樹立中氣爲第一者何居? 聖人曰: 精, 穀氣也. 可見腎爲藏精之處, 伎巧出焉, 苟非有五穀之養, 五味之調, 則亦從何而生? 然經又曰: 精不足者, 補之以味. 假使胃不能拿, 脾不能運, 又如之何? 故聖人以建中主治, 使中州之土已壞復起, 將飲食入胃者, 游溢精氣, 上輸于脾, 脾氣散精, 上歸于肺, 如經所云者, 則五臟百脈自裕矣, 豈但已病乎哉?” 周揚俊, 『金匱玉函經二注』

熱을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東垣은 土가 약함으로 인해 생기는 熱의 문제를 陰火의 개념을 통해 설명했고, 이 熱을瀉하는 데 있어 五行의 相生, 相克 관계를 좇아 補法을 위주로 하면서 補瀉를 兼施하는 방법을 취했다. 吳鞠通이 東垣의 治法에 대해 仲景의 純補만 같지 못하다고 한 점은 아마도 仲景의 法이 形과 氣의 문제에 대해 土에 초점을 맞추고 中土의 形을 되살림으로써 陰陽形氣의 不足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한 것이라면, 東垣의 治法은 土의 不足에 의해 나타나는 虛熱의 문제를 元氣의 상승을 도와 急救하는 것으로서, 藥性으로써 土를 보호하고 그 기능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맺음말

이상으로 吳鞠通이 東垣에 대해 언급한 바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이상의 내용은 본래 吳鞠通의 의학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글에서는 그가 언급한 바를 단순히 醫論의 기초적인 면들을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東垣의 法의 요지는 결국 『內經』의 이론을 좇아 外感, 內傷을 막론하고 모두 陰陽形氣의 문제로 귀결시킨 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東垣은 陰陽形氣가 모두 부족한 경우의 병증에 대해 그 병기를 그의 脾胃學說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즉 外感, 內傷의 개념은 질병의 발생에 있어 사람의 내적, 외적인 陰陽形氣의 균형의 문제에 대한 결과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결국 의학이론에서 사람의 근본적 소인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吳鞠通, 溫病條辨,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4
- 2) 周揚俊, 金匱玉函經二注,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華夏出版社, 1997
- 3) 成无己, 傷寒明理論,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華夏出版社, 1997